무한도전 프로젝트 '메페토'팀,
광주광역시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GPT를 활용한 공공의제 토론 플랫폼을 제작해 우수상 받아

▲ 지스트 무한도전 프로젝트 '메페토' 팀이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임기철)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대학생 5명으로 구성된 **'메페토'팀이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황인선(3학년·팀장), 서동호, 박주명, 최익준, 이보성 학생이 뜻을 모아 구성한 '메페토' 팀은 3C1P* 인재상을 갖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스트가 추진 중인 **「GIST 무한도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받고 있다.

이 팀은 이번 대회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한 **「챗GPT MS애저톤」에서도 수상**한 경험이 있다.

* **3C1P:** 지스트의 교육철학이자 인재상으로, '3C'는 창의성(Creativity)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협동심(Cooperation)을, '1P'는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을 의미한다.

이번 대회에서 '메페토'팀은**'GPT 기반의 반자동 콘텐츠 생성을 통한 공공 의제 토론을 돕는 미디어 플랫폼'**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웹 시제품을 제작해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2등인 우수상(광주광역시장상)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단체 오픈AI가 제작한 대형 언어 모델로, 사전 학습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딥러닝 인공지능이다.

이 팀은 공공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려면 알아야 하는 전문 지식이 많다는 문제에 착안했다. **GPT를 기반으로 법률 용어 및 발의 법률안을 해설**하고, **공공의제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반자동 생성 기술로 만들어 내는 기능**을 웹 플랫폼에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황인선 학생은 "지스트의 법·정치 수업에서 다루었던 디지털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지스트가 운영하는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지스트 혁신기업가교육센터가 주관한 '호남권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에서 경험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더하여 "현재 베타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창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9회를 맞는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며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상식은 광주창업포럼 행사와 연계해 지난 6월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